



“오로지 발레… 새로운 길을 닦는 마음으로”

제주 문화계 이 사람 (31) 김길리 제주시티발레단장

2년전 발레단 창단 적극 홍보
제주4·3과 해녀 등 창작발레

“중·고교 예술학교 설치돼야
공립예술단에 발레 진입 필요
제주 자생력 제고에 관심을”

발레라는 꽃이 자라날 흙을 다지는 사람이 있다. 그는 ‘돈 버는 인생’을 접어둔 대신 토양이 척박한 제주 무용계에서 발레의 싹을 틔우는 일에 뛰어들었다. 제주시티발레단 김길리 단장이다.

“발레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재밌었다. 발레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더 해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김 단장 이전에 제주에서 발레를 전공한 이는 한 명 정도 손에 꼽힌다. 그는 한국무용을 하는 이모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춤이 낯설지 않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고 차츰 현대무용으로 눈길이 쏠렸다. 발레에 대한 꿈은 대학 진학으로 이어졌고 신라대를 졸업한 뒤에는 러시아 페름국립

대학교를 수료했다.

그는 2014년 한국발레협회 제주지회를 만들었고 2017년 7월에는 제주시티발레단을 꾸렸다. 짧은 역사이지만 그동안 창작발레 ‘제주 해녀의 꿈’, 제주4·3을 다룬 ‘잃어버린 정원’을 무대에 올렸고 서귀포예술의전당 ‘발레 스타 갈라쇼’, 러시아 국립발레단 초청 ‘호두까기 인형’ 공동 기획에 나섰다. 지난 8월엔 서울의 탄조올림피아시아와 협력해 청소년 발레 집중교육을 운영했다. 앞으로 ‘제주 해녀의 꿈’을 제주 대표 창작 발레로 다듬어 공연하고 오페라와 협업해 남북 통일 기원 의미를 담은 ‘제주 설문대 할망의 대서사시’도 구상하고 있다. “운이 좋게 주변에서 도움을 준 덕분”이라고 했지만 40대 초반인 김 단장이 오로지 발레 하나만 보고 달려온 결과다.

당장 10월 ‘대한민국 문화의 달 제주’ 개막식에 출연하는 등 제주시티발레단의 오늘은 밝아보이지만 화려한 무대 뒤엔 ‘그들’이 있다. 제주 발레리나, 발레리노 저변이 약한 탓에 공연을 펼치려면 서울에서 활동하는 무용수를 불러와



제주시티발레단 김길리 단장은 화려한 무대 뒤 지역 공연예술가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제주 문화예술의 자생력 강화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바람을 전했다. 전선희기자

야 한다. 문화예술기금을 지원 받더라도 예산이 부족해 매번 사비도 털어야 했다. 임대 연습실 역시 언제 비워줘야 할지 모른다.

김 단장은 중·고교 예술학교, 대학 발레 전공학과 설치 등 제주에서 발레 무용수를 키워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에 발레학원이 늘면서 발레리나가 되고 싶은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정작 진학할 상급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제주도립 발레단 결성이 어렵다면 한국무용을 하는 도립무용단에 분과 형식으로 발레 전공자들의 진입 통로도 만들어

지길 바랐다. 지자체나 기업에서 춤 공간 하나 두기 어려운 제주 무용인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바람도 전했다.

그는 서울 등에서 갖가지 공연과 교육이 제주로 흘러들며 제주민들의 경험기회가 많아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괴감도 든다고 털어놨다. “제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외부에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입된 문화예술의 단편적인 결과물만 반복된다면 제주의 자생적인 경쟁력과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전선희기자

4월이 묻는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제주4·3평화재단 특별전
임춘배 작가 ‘4월의 단상’
10년 만에 제주시 개인전
평면·입체 넘나들며 작업

“이미 세월은 흘렀건만 슬픈 자들은 떠나가도 그 상처들만 딱딱한 군살처럼 우리 몸에 박혀 있다. 실감나지 않는 무통(無痛)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래도 수난자의 편에 서서 과거의 아픔에 동참하려는 노력들은 4·3의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

조각가인 임춘배 제주교대 교수가 제주4·3을 주제로 개인전을 열면서 써놓은 말이다. 제주 개인전은 ‘임

춘배 조각 30년전’ 이후 10년 만에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이 운영하는 4·3평화기념관에서 막이 오른 이번 전시는 ‘4월의 단상(斷想)’이란 이름을 달았다. 흔히 ‘4월’로 불리는 4·3에 대한 단편적 생각들을 여러 기법과 재료로 표현한 작품들이 펼쳐진다.

총품작은 40점으로 박제된 4월, 토렘, 공(空), 이어도의 눈물, 아름다운 날들, 인간애로 나눌 수 있다. 해당 주제에 딸린 작가의 말을 통해 4월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거쳐 궁극적으로 평화의 바다에 다다랐으면 하는 바람이 읽힌다. 박제된 4월은 민중들의 수난, 토렘은 억압적 국가체제, 공은 전쟁과 학살(殺害)에 대

비되는 비움, 이어도의 눈물은 섬에 사는 제주인들의 설움을 의미한다. 그것은 연민이 배인 아름다운 날들, 생명의 숭고함을 간구하는 인간애로 수렴된다.

임 작가는 유화 물감, 점토, 나무, 돌, 금속, 칠보, 디지털 사진 등 여러 재료와 기법으로 4월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평면과 입체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그 작업의 끝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자리하고 있다.

제주 김유정 평론가는 이번 작품에 대해 “임춘배 작가가 일생동안 고민해온 실존의 문제들, 미학과 세계관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풀어놓은 전시”라고 평했다. 김 평론가는 “특히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강에 발을



임춘배의 ‘박제된 4월’.

담글 자신만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4·3의 작품을 당당히 발표해야 한다”며 “비극적 역사를 사유하고 풍요롭게 창작을 하는 것은 질투나 독점으로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4·3 71주년 특별전으로 이달 15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4)723-4354. 전선희기자

‘제주 오현’ 대전에서 조명하는 이유

대전시립박물관 특별전
11월말까지 ‘제주 오현’
송시열 유허비 탁본 등
오현 관련 유물 한자리

제주 문화와 사상 형성에 영향을 끼친 5인을 일컫는 오현(五賢). 충암 김정(沖菴 金正), 규암 송인수(圭庵 宋麟壽), 동계 정은(桐溪 鄭蘊),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이 그들이다. 오현을 모신 제주 오현단은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이들 오현을 조명한 전시가 제주가 아닌 대전에서 열리고 있다. 대전시립박물관이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달 30일 개막한 특별전 ‘만고유풍 산고수장(萬古遺風 山高水長)-제주 오현전’이다.

오현은 대전과 인연이 깊다. 김정, 송인수, 송시열은 대전의 인물이다. 김상헌은 대전지역의 호서사림(湖西士林)과 학문적·정치적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정은도 대전의 주요 인물인 축창 이시직, 동춘당 송준길과 뜻을 같이하고 교류했다.

이번 전시에는 제주는 물론 전국에 산재한 오현 관련 유물이 나왔다. 오현의 성립에 기여한 산수현 권진응(山水軒 權震應), 응와 이원조(凝窩 李源祚) 등과 관련된 유물도 전시해 제주 오현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이끈다. 특히 송시열이 제주 유배시절 조카에게 보낸 편지가 담긴 ‘덕은세적첩(德殷世蹟帖)’, 제주 오현단에 위치한 ‘우암선생적려유허비(尤菴先生謫處遺墟碑)’ 건립 당시의 탁본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유물도 볼 수 있다.

대전시립박물관 측은 “제주 오현전을 통해 제주와 대전의 유교 문화 비교뿐 아니라 선비 정신에 대해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11월 29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42)270-8611.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쏙지

부미갤러리 ‘에로티즘’

제주시 연동(은남3길 19)에 자리잡은 부미갤러리가 개관 5주년을 기념해 9월 한달 동안 ‘에로티즘’이란 이름으로 특별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춘화가 나온다. 은밀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의 춘화, 도식적인 성향이 느껴지는 중국의 춘화, 과장된 표현이 드러나는 일본의 춘화 등 나라별 특징을 살릴 수 있다. 최경태 이병헌 송부미 최연재의 작품도 내걸었다.

갤러리 측은 “외설이 아니라 예술의 한 장르로 편안하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삼다연서학회 회원전

사단법인 삼다연서학회(이사장 김선영) 열여덟 번째 회원전이 문예회관 3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먹글로 탐라풍아(耽羅風雅)’를 노래하다’란 이름을 단 이번 회원전에는 40여명이 출품했다. 제주 자연, 영주십경 등 문학과 생활 속에 담긴 제주의 풍경을 서예창작 예술로 표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는 이달 5일까지 계속된다. 삼다연서학회는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외 서예교류 사업과

연계해 이번 발표 작품들을 외국 서에게 소개하는 등 제주를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삼다연서학회는 2007년 소정연서회로 창립했고 2009년 사단법인체로 출범하며 지금의 이름으로 바꿨다. 중국 북경, 상해, 연변 지역 장애인 서예가와 교류전을 가져왔고 국내 서예창작 그룹과 교류전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문인화대전 다수 입상

제20회 대한민국문인화대전에서 제주 문인화가들이 여럿 입상했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화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문인화대전운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994점이 접수됐다. 1차 심사와 2차 현장 회화를 거쳐 지난달 28일 발표한 심사 결과 제주 문인화가들이 다수 입상작에 들었다.

제주 지역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특선=김태남 양원석 홍보영 ▷입선=김부자 박민선 이서진 이진아 임점모 한용희 홍선희 양영옥 현숙 현은아 이화춘 옹미희 강수영 강경숙 김향아 전영희 김일만. 입상작은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전시된다.

40년
전통
연구
개발
창업자



대한민국
대표방수제

친환경 칠만표방수제 누구나 칠하면
장기간 100% 방수

KCC 페인트

제주대리점
컴퓨터 지동시스템(조석기) 구비

강력접착방수제



(주시공처: 건입동 현대아파트·외도 일우아파트 외)

특징

통기성 (공기는 통해도
물은 들어가지 않는) 이
있어 들뜨지 않습니다.

용도

모든 콘크리트 건축물
일절 (옥상, 외벽)

※ 소비자가 인정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수제

한번 칠하면 100% 방수되고 오래가는 칠만표 수용성 방수페인트

특징

- 강한 접착력은 들뜸이 없고 부식이 안돼 장기간 미관유지 (시간절약, 비용절약)
- 단열효과로 집안이 쾌적하다

용도

- 드라이비트 및 콘크리트외벽 (주택, 아파트, 빌라, 펜션, 호텔, 상가 등)
- 타일면 ○ 벽돌면
- 스톤면

※세 찬 비바람과 비가 자주오는 제주 주택에, 특히 드라이비트 외벽에 참 좋습니다.



드라이비트벽: 성지요양원



타일면: 이도아구점빌딩

싱글 지붕용 탄성도막방수제



노형 위덕스빌라 12차, 미건빌라

자외선에 쏘(부식)아 있는
싱글 지붕에 칠하면
100% 방수되고
단단한 새 지붕으로
바뀝니다.

최고급 벽난로 판매

- 100% 스텐연통 설치
- 무동력 펠릿+화목겸용



조천면 대율리 가정집 설치



- 초기점화 30초내
- 종류: 장작용, 정원용, 캠핑용 벽난로

★ 주요생산물 : 녹/외색 접착방수제, 황토방수제, 균열보수제, 모체강화제, 수용성성질투성방수제(발수제), 타일줄눈방수제, 결로방수제, 고농축완결방수제, 급결지수제, 우레탄류

방수
백화점

금강종합건설

KCC

페인트

칠만표방수제

(주)대화정밀

현대공구

난로세상

제주대리점

T. 752-8209, 758-8209, F. 753-8209

※모방품주의바랍니다.